

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1. 4. 22.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김규식

1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과학적, 선제적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 책무 관련 사항(안 제3조)

나. 빅데이터 활용 기반마련에 관한 사항(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)

- 1)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,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등의 기본계획 수립
- 2) 빅데이터 책임관 및 빅데이터 위원회 설치 등
- 3)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수집·관리·저장·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
- 4)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·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요청 및 수집하여 전산시스템에 저장

5)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의 비식별화

6)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
사업 추진

다. 빅데이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라.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1) 빅데이터 분석·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설치

2) 빅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분야 전문가 구성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1. 3. 4. ~ 3. 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4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총 14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기본계획 수립 등, 빅데이터 책임관(안 제5조 ~ 안 제6조)
 - 안 제5조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,
 - 안 제6조에서는 빅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을 ‘빅데이터 책임관’으로 지정하여 빅데이터 수집·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음
- 빅데이터위원회 설치 등,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(안 제7조 ~ 안 제8조)
 - 안 제7조는 ‘빅데이터위원회 설치 등’에 관한 사항이며,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」에 따른 ‘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전략위원회’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,
 - 안 제8조는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자료 수집·관리·저장·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둠
- 빅데이터위원회 설치 등,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(안 제9조 ~ 안 제10조)
 - 안 제9조에서는 전산시스템 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빅데이터 책임관이 빅데이터를 수집·관리·저장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10조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빅데이터 실태조사,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(안 제11조 ~ 안 제12조)
 - 안 제11조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12조에서는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

- **평가,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(안 제13조 ~ 안 제14조)**

- 안 제13조에서는 소속기관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및 운영성과 등의 실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14조에서는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개인·기업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

○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규모 데이터가 중대 이슈로 부각되며,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경쟁력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즉,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에 집중하는 ‘빅데이터(Big Data) 시대’가 도래하게 되면서,

○ 기업들은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, 공공부문에서도 행정 전반에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공공 정책 및 정부의사 결정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.

○ 성동구는 2019년 3월에 ‘성동구 빅데이터센터’를 출범하고,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운용할 수 있는 ‘빅데이터 분석 플랫폼’을 구축하여 지역 내에서 생기는 온·오프라인 데이터를 수집·저장·연계하여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 데이터 분석결과를 맞춤형 정책지원,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

정책 집행에 이용하고 있습니다.

- 이처럼,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빅데이터 기술을 토대로 개발과 분석을 시도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빅데이터 추진 근거 법령이 미비한 실정이며, 이미 빅데이터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과 인력이 이전부터 존재했던 점을 볼 때 본 조례안 제정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